■ 법사위, 광주 법원·검찰 국감 현장

11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정갑주 광주고법원장이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안영률 광주지법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왼쪽부터) 등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위 법관 전관예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11일 광주고·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위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질의와 추궁이 쏟아졌다. 또 '초미니 법원'인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전직 법원장 '전관예우' 성토=이날 국감이 열린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은 '전관예우'를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광주지역 법원장 출신의 두 변호사가 대법원의 예규를 어기고 퇴임 6개월 전에 맡은 사건이 많다"며 "두 변호사가 퇴임후 1개월 만에 각각 4건, 2건을 수임한 것은 과거에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또 "최근 법조계에서 회자되는 '전관'은 있지만, '예우'는 없다는 말에 동조할 수 없다"며 "'판사들은 퇴직 후 한몫 챙긴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개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광주지법원장 출신의 모 변호사는 퇴임후 6개월간 29건을 수임해 1위를 차지했으며, 퇴임후 1년간 수임한 38건 가운데 형사사건의 비율이 84.2%(32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판사 3명 '초미니' 법정 칭찬 릴레이=이날 국감장에서는 광주지법 장흥지원의 각종 '사법 서비스'가 집중 부각됐다. 특히 의원들은 ▲이주여성 개명 지원 ▲공탁금 청구 안내문 송달 실적 ▲민사조정 배심원제 등에 대해 잇따라 '칭찬'을 쏟아냈다. 장흥지원은 최인규 지원장을 제외하면 판사가 3명인 '초미니' 법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흥지원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신부나 신랑에 대해 한국 이름을 지어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장흥지원의 노력은 감사할 만한 사례"라고 극찬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 확충을 위해선 법원 공탁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흥지원의 공탁금 청구 안내문 송달률은 2006년과 2007년 21% 수준에서 올해 현재 66%에 달할 정도로 크게 개선됐다"고 호평했다.

또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장흥지원이 전국 최초로 민사배심조정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군민 배심원제를 도입한 것은 모범적인 사법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루머 난무 '오현섭 사건' 철저 수사를"

11일 광주고·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방 사건'과 '오현섭 전 여수시장 뇌물 사건' 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방향 및 '외풍'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상률 전 청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8)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등 외부의 눈치를 봐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외풍'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정작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김씨가 아닌 전 청장"이라며 "김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광주고검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과정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자 검찰이 여수시정 안팎의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검찰의 정보력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정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토착비리를 사전에 근절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며 "검찰은 일부 '투서꾼' 등에 의한 고소·고발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6·2 선거에서 광주·전남의 선거사범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유난히 투서가 많은 지역의 정서와도 무관치 않다"며 "허위 사실을 투서할 경우 검찰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다 신중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해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3.5%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며 "법원이 영장발부 요건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 국감 브리핑

전남 도시가스 보급 '꼴찌'

김재균 의원 밝혀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11일 배포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29.5%((78만3000가구 중 23만1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반면, 산간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61만7000세대 가운데 20만9000세대에 보급돼 33.9%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도의 보급률도 49.2%나 됐다.

"라응찬 차명계좌 수백억"

조영택 의원 주장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운영해온 가·차명계좌가 1000개를 넘으며 그 비자금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한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운영액수가 가야CC에 투자한 50억원 이외에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같은 당 신건 의원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으며, 연계된 가·차명계좌가 모두 무려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孫 당직 인선… 호남중용 '화합형인사'

사무총장 이낙연·비서실장 양승조·대변인 이춘석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사무총장에 이낙연 의원, 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에 양승조, 이춘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날 인선의 명분은 당내 화합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차기 대권 도전 등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본류인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의 지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비롯해 당의 화합과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낙연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기용하는 당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이에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내 주요 인사들과 접촉,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무총장 후보로는 손학규 대표 사단으로 꼽히는 정장선, 김부겸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낙연 의원의 기용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3선의 이낙연 의원은 원만한 성품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에서 당내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적격이라는 점에서 사무총장에 전격 기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낙연 사무총장 카드에 대해 당내 각 계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변인 출신의 이낙연 의원은 꼼꼼하면서도 정치적 감각이 탁월, 당 조직과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동력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낙연 사무총장 카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타났던 손 대표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지지를 더욱 다지는 한편, 당내에 현존하고 있는 구 민주계 등에 대한 화합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변인에 전북의 이춘석 의원이 기용된 배경도 손 대표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측근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표 비서실장에 낙점된 양승조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손 대표를 공개 지지한 바 있으며 '충청 배려'라는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손 대표 측근 인사는 "당내 화합과 소통이 당직 인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이낙연 의원의 사무총장 기용은 호남 민심과 당내 소통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권교체 확신 당원들에 심어 줄 것"

이낙연 민주 사무총장

"당분간 큰 선거가 없으므로 차분하게 조직이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당원들에게는 정권교체의 확신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일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이낙연 의원은 "당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가며 쇄신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안팎에서 당직자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사무처의 인력풀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쇄신은 어려울 것"이라며 "목적에 합당하게 부분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손학규 대표에 맞는 사무처 체제가 필요하며, 당직자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특히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는 당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고 건강하게 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지난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야권후보단일화 경선 시 민주당 후보가 국민참여당 후보에게 패배한 데 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왜 그랬는지'를 보면 민주당 조직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각종 선거의 공천작업을 주도할 위치에 앉게 된 이 의원은 "향후에 벌어질 재보궐선거 공천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할 것이며 해당 지역위원장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 영입문제도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 겸임 여부에 대해 "전남 지역위원장들과 상의할 것"이라면서도 "겸임하면 된다. 급한 일은 이호균 수석부위원장이 대리할 것이다. 과거에 김효석 전남도당위원장이 원내대표를 맡자 신중식 의원이 권한대행을 하는 등 당 내외에 수차례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